

## Robert Vannoy 박사, 구약 역사, 강의 24

© 2011, Robert Vannoy 박사 및 Ted Hildebrandt

### 창세기 22장 - 아케다, 이삭을 결박함

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 약속의 아들 이삭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인 창세기 22장을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난 시간 말에 그것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자기 손으로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명령의 배경은 약속이 이루어질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을 통해)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 약속은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 성취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와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네게 이르는 말은 다 들으라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씨로 여길 것임이니라 여종의 아들도 네 소생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약속의 씨는 이삭에게서 나리라. 창세기 17장 18절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이스마엘이라도 당신의 축복 아래 살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워 그의

후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을 삼으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으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를 번성하게 하고 그의 수를 크게 늘리겠다. 그는 열두 통치자를 낳을 것이니, 내가 그를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래서 17장 18-21절에는 이 혈통이 이삭을 통해 계속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 마지막 시간에 창세기 22장에 대한 칼빈의 논평을 읽었을 때 그는 아브라함의 갈등은 그 약속과 관련된 주님의 말씀과 그가 이 시점에서 그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사이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견딜 수 있었던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22:8, 14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 여호와 이레

저는 창세기 22장의 주제가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라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8절에서 이삭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그래, 내 아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하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리고 14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막으셨을 때 그는 수풀에 있는 숫양을 보고 그를 대신하여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고 했습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있어요. 여기서 히브리어를 음역한 “여호와 이레” 를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된 구절의 마지막 문구( 킹제임스 번역은 이것을 모호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는 “주의 이름으로 이것이 보이리라” 고 말합니다. 번역에 일관성이 있다면 그 문구를 다시 “산에서 여호와께서 공급하실 것임” 으로 번역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제공하다” 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보다” 의 수동형이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NIV의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번제를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실 것이다” 입니다. 좋은 번역이지만, 끝까지 ‘본다’ 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NIV는 14절에서(제 생각에는 킹제임스 성경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련하시리라” 고 말한 다음 “여호와의 산에서 제공되리라” 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요 사상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KJV는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보이리라” 고 말합니다. “

보이리라” 는 말은 그 문구의 강조점을 모호하게 합니다. 창세기 2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이제 아노니 - 의인화 된 표현 이제 12절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  
“지금은 내가 안다” - 하나님께서 전에는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그는 그의  
전지하심으로 아브라함 의 믿음 의 힘을 알고 계셨습니다 . 확실히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이 이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 표현은 의인화 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매우 인간적인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기술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주요 요점은 실제로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교도의 어린이 희생과 이 본문의 성격 사이에 유사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기꺼이 자기 자녀를 희생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구절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를  
기꺼이 희생할 것입니까?

Akedah의 주요 초점 [Kaiser 대 Vos]

구약성서의 다른 곳에서는 인간 희생을 강력히 비난하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어려운 질문이 제기되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습니다. Walter Kaiser의 저서 *Old Testament Ethics* (262 페이지)에서 그는 “창세기 22장은 가장 끔찍한 형태의 살인을 저지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표현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 문단에서 그는 “율법은 인간 제사를 명백히 금하고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바치라고 명한 자들을 비웃는 말을 하였느니라” 고 말하면서 이에 대해 좀 더 논합니다. 그는 “창세기 22장은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험하기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소개하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표기법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독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서문 명령이 아니라 전체성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Kaiser는 그 구별을 한 다음 자신의 토론에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만약 반대한다면 어떤 신이 인간에게 이런 시련을 주겠는가? 답은 이야기의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최초의 명령이 강조된다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은 기만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야훼께서 손을 들지 못하게 개입하시고 그에 따른 아브라함의 축복이 강조된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인은 누구든지 그의 종족이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하는 롤랑 데보(Roland Devaux)의 결론에

동의할 것입니다. 하나님 의 자비 와 우리 조상들의 번영에 대한 순종입니다.  
” 즉, 그는 고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대신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Kaiser가 더  
나아가 매우 어려운 질문을 제기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Kaiser  
는 263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Gerhardus Vos는 이삭을  
희생하라는 신의 명령이 “추상적으로 인간의 희생을 원칙적으로 정죄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암시한다는 추정으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한 비판적인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속죄의  
근본 원인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Kaiser의 진술은 Vos의 요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그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 그의 외아들을 바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천사가 개입하여 한 생명(이 경우에는 숫양의 생명)을  
다른 생명으로 대체한 것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스는 ‘인간 생명의 희생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적인 죄 많은 인간 생명의 희생은 구약(Kaiser 263-264)에 의해 반대된다  
'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그 시점에서 Kaiser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Vos의 추론 방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거의 모르겠습니다. 타락 이후 인간에게 알려진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대체물은 물론이고 선물로 기능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대속의 원리가 본문 자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 생명으로서의 이삭이 여기서 이론적으로나 원칙적으로 피의 속죄를 가리킨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Kaiser는 Vos가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비유를 거부합니다. 이 구절의 강조점은 시험의 측면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약속의 첫 번째 수신자들의 어떤 묵인된 도움 없이도 그분의 약속을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생명이 속죄인 인간 희생의 개념입니다. Kaiser는 이에 대해 설명했지만 실제로 인간의 생명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것을 시험의 측면, 대안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인간 희생(다른 문화들 사이에 존재했던)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 사이의 유사점에 대해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싶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구약의 율법은 인간에 대한 합법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희생.

Vannoy의 반성

이제 나는 골고다와 평행이 되는 한 거기서 말한 것이 창세기 15장의 연기나는 풀무가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22장이 신약 본문과 평행을 이룹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그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그의 아들을 아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그의 혈통이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거두라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만일 필요하시면 자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확신하였더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의 생명을 취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면,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카이저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철회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점은 본문에 있는 자비와 은혜와 공급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최선의 대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하실 수도 있었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분의 약속이 헛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 [창. 12 & 20] 그녀는 내 여동생이야

좋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실패, 약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22장에서 그의 믿음의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다른 저명한 인물들의 장점과 약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영웅이고 특히 신약성서(로마서, 히브리서,

야고보서)에서 그런 인물로 표현되지만 여전히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선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에게는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아내를 누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10-13절을 보면

“ 그 땅에 흉년이 들매 기근이 심하므로 그가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려 하여 애굽에 들어가려고 가까이 왔을 때에 그가 자기 사래에게 이르되 아내여, 보라 내가 이제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인 줄 아노라 장래가 되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 주리라 . 원컨대 당신은 내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잘되고 내 영혼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

그는 그의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가 그녀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이집트인들이 그를 제거하려는 시도로 이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말하면 그 반대가 될 것이며 호의와 좋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계산합니다. 그것이 전술이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의한 것이었고 아마도 다른 경우에도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여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두 번째 사건이 그랄 사람 아비멜렉에게 일어나는 창세기 2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유리하게 하실 때에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네 은혜라. 우리가 갈 모든 곳에서 당신이 나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나에 대해 “그 사람은 내 동생이다” 라고 말해주세요.’” 그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거짓이 아닙니다. 창세기 2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 누이니라. . 그 사람은 내 아버지의 딸이지만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고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그의 아내가 된 이복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곳에서 분명히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사라가 그의 여동생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 그러나 그녀는 그의 아내이자 유일한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확실히 그것은 속임수였습니다.

일전에 여기에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사라가 65세나 90세에도 어떻게 그토록 매력적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연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다” 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니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라고 말하는 17장 17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10살의 나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내려왔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이는 12장의 사라가 65세였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2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삭이 태어났습니다(21장 참조). 따라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약 100세였고, 사라는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약 90세였습니다.

창세기 23장 1 절을 보면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아름다움과 나이를 고려하면, 사람들이 125세까지 살 때 평균 폐경 연령은 몇 살이었을까요? 오늘은 45~50세입니다. 평균 수명이 현재 약 50년 정도 줄어든다면; 아마도 폐경기도 약 50년이 적거나 75세 정도였을 것입니다.

. 이제 나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순수한 추측입니다.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았을 때 폐경은 45세에서 50세가 아니라 대략 75세쯤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5세, 90세가 되어도 일흔다섯이 되어도 여전히 아름다운 미모를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2~3주 전에 이 소식을 보셨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여성인 플로렌스가 이곳 펜실베이니아주 랜스데일에 있는 의사 요양원에 거주하던 114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내 아내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114세까지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우리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Sarah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어쨌든 사라의 아름다움은 아브라함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하도록 유도합니다. 사라는 파라오의 후궁으로 끌려갔고 아브라함이 의심한 대로 온갖 선물을 받았습니다. 12장 14절을 읽어 보십시오: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심히 아리따웠더라 애굽 고관들이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매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데려가니라” 집.” 그리고 16절에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였다. 그에게는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귀와 낙타가 있었느니라.” 19절에 “내가 그를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이제 네 아내를 만나라. 그를 데리고 네 길로 가라.’ 파라오가 그에 관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보내라.”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왜 포함되어 있나요? 요점은 우리가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전술로 인해 초래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신다 . 중요한 것은 약속된 씨의 계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된 씨를 낳을 수 있도록 보호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그런 곤경에 처하더라도 주님은 그 결혼, 즉 약속된 자손이 올 결혼을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유지하십니다.

Joseph Free의 저서 *Archeology and Bible History* (55페이지)에는 이 구절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기 누이라고 말한 이유는 파라오가 아름다운 여인을 그의 궁정으로 데려오게 하여 그 남편을 살해하게 했다는 파피루스 문서의 발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사라의 남편이 아니라 사라의 형제라는 사실이 이해되기를 바랐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즉, 그의 우려는 정당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기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낙타에 대하여 그가 주목하거나 주목하는 또 다른 사실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소유한 것 중 낙타가 있었다는 표시에 대해 무심코 독자가 대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에게는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귀와 낙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앞서 성경 비평가들이 낙타를 가축화했다고 말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앞서 언급한 것 같습니다. 프리는 조각상, 낙타 조각상, 낙타를 표현한 명판, 바위 조각 및 그림을 포함하여 이집트의 낙타에 대한 초기 지식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낙타 뼈, 낙타 털, 낙타 밧줄 - 숫자가 약 20개에 달하는 이 물체는 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전 3000년 이전 기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고고학 데이터 해석에 대한 이러한 논쟁을 시작하면 프리(Free)에 따르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증거. 낙타는 아브라함 시대보다 오래 전에 가축화되었습니다.

창 20장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 배경 이삭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둘째, 동일한 전략이 두 번째로 사용되는 20장에서는 1-4절을 읽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향하여 그랄로 가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에 대하여는 내 누이라 하고 또 아비멜렉은 나라의 왕이라 하였느니라.” 그랄이 사람을 보내어 사 را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밤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하시니라 아비멜렉이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나라를 멸하시려나이까 그는

나에게 “그 사람은 내 동생이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녀 자신도 “그 사람은 내 동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순수함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라는 다시 풀려났습니다.

이제 20장을 이해하려면 20장의 문맥을 살펴보고 20장에서 일어나는 일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7장으로 돌아가면 17:17-19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앞드리어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그리고 아브람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오, 이스마엘이 당신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워 그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신지라

21절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고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7~19절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두 가지 다른 진술이 있는 18:10-14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사라는 웃은 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기한을 따라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17장에는 “내년의 생명의

때를 따라 정한 때” 가 있고, 18:10에는 “정한 때” 가 있고, 18:14에는 “생명의 때를 따라” 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열왕기하 4장에 거의 동일한 문구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21절에서 “이 정한 때” 로 번역된 히브리어이고, 18장 14절에서 “ 정해진 때 ” 로 번역된 히브리어이며, 18:10과 18:14의 “생명의 때를 따라” . 열왕기하 4장 16~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면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여종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엘리사가 말한 그 기한에 따라 아들을 낳으니라.

문맥상 이 말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아이 곧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는 히브리어에서도 동일한 표현이다.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그 때” 는 히브리어 표현과 동일합니다: “때가 그 때니” . ‘이번 시즌’ 도 그런 표현이다. 단지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번역되었을 뿐입니다.

“그 때에는 인생의 때를 따라” 로 번역되었으나, 히브리어로는 창세기 18장 10-14절과 동일한 문구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1년 안에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기한과 인생의 때를 따라”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시간은 1

년입니까, 아니면 임신 기간입니까? 후자일 수도 있으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의 즉시 임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에 따르면 이맘때, 즉 내년에 그들은 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가는 배경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랄로 내려가서 아비멜렉에게 “그는 내 누이라” 고 말하고, 아비멜렉은 사라를 그의 하렘으로 데려갑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네가 죽은 자니 네가 취한 이 여자는 남의 아내임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라를 약속된 씨의 어머니로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은 누가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인지 의심이나 의심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목적을 이루시고 약속의 계보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20장 그랄에서 아비멜렉의 사건 직후,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이는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음이니라” (창 21:1-2). 그래서 아비멜렉의 사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시점 과 실현되는 시점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약속된 씨를 보존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다

이제 이것은 약간 백업됩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서 씨를 약속받았고, 15장에서 그 약속이 반복됩니다. 창세기 15장 4절은 “엘르아자르가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허리에서 나온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고 말씀하지만 사라는 여전히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6장에 이르면 첫 번째 구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에게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금하셨으니 청하노니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소서. 혹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사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이 된 후에 그의 아내 사래가 자기 여종 애굽인 하갈을 데려갔더니” 하갈은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받았던 여종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녀는 이집트인이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 1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갈을 데려왔고 그녀를 통해 그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배열은 우리에게 다소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 당시에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배열에 대한 언급은 함무라비 법전과 누지 문헌(

같은 종류의 다른 고대 문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라와 하갈 나는 *구약의 역사*, 아니 오히려 신문 형식의 유대인의 역사인 *역대기* 두 권을 가져왔습니다 . 이것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주고받은 편지인 “아브라함과 새 믿음” 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홍수 이후 최악의 재앙으로 멸절되었습니다. 신비한 불꽃이여, 지진이여, 싯딤 골짜기를 휩쓸느니라.” 그리고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외국 뉴스가 있습니다. 여기 바빌론에서 함무라비까지. 보세요, 함무라비는 약 700 살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략 - 음, 날짜가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이것은 역사적으로 꽤 좋습니다. “야곱은 아들의 체포에 항의합니다. 이집트에서 스파이 사냥. 간첩 혐의로 기소, 거부, 기소되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리는 가족을 위해” 음식을 사러 왔습니다. 이 내용에도 아주 웃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사본이 있으니 가끔 보고 싶으시면 읽어보세요.

하지만 제가 이 중 세 번째 항목에서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 대 하갈: 법원 판결, 하갈은 머물고 이스마엘의 권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라 대 하갈 사건과 관련된 함무라비의 발췌문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인용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여자와 결혼했지만 그녀가 그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고 그가 다시 결혼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남자는 두 번째 아내와 결혼하여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올 수 있지만 그 두 번째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위와는 전혀 순위가 다릅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여 그 여자가 그에게 여종을 주었고 그 여종이 아이를 낳았다가 나중에 그 여종이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그 여주인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면 그 여주인은 그를 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에게 종 표를 표시하고 그녀를 종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주인이 그를 팔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첫 번째 아내가 그에게 자녀를 낳았고 그 여종도 그에게 자녀를 낳았다면, 아버지가 그 종이 자기가 낳은 자녀를 첫째 아내의 자녀와 함께 계수하여 “내 자녀”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그 이후에는 아버지가 무덤에 갔을 때 첫 번째 아내의 자녀와 종의 자녀는 아버지의 재산을 동등하게 나누어 받을 것이며, 첫 번째 아내의 맏아들이 우선적인 몫을 받습니다.” 이는 노예를 데려가는 풍습이 함무라비 시대에 알려졌고 법으로 규제된 일이었음을 보여준다.

빅토리아 위트케(Victoria Wittke)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Ted Hildebrandt 가 대략적으로 편집함

Jennifer Bobzin의 최종 편집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가 다시 해설함